붙임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 (성인)표준 계획서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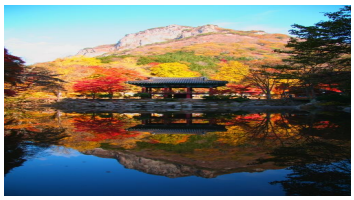
□ 운영형태: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 성인 탐방객을 위한 대상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 주요내용: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과 비자나무 잎과 열매를 이용한 향기체험

2. 세 부 일 정

시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장소	준비물	비고
10:00~10:05 (5분)	도입부	◯ 첫 만남 - 프로그램 개요 안내 - 산행 전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	일광정		**안전교육**
10:05~10:25 (20분)	전개부 자연,·문화 해설 및 비자나무 향기체험	◯ 일광정(국립공원 및 백양골 소개) - 국립공원이란? - 백양골 소개 - 일광정 연못 - 당산나무	일광정 연못		국립공원 소개
10:25~10:55 (15분)		◯ 갈참나무길 - 700년된 갈참나무 - 애기단풍	갈참나무길		식물해설
10:55 ~11:10 (15분)		◯ 천년고찰 백양사와 쌍계루 - 쌍계루의 역사 - 쌍계루의 240여편의 시 - 시인들의 약력	쌍계루		문화해설
11:10 ~11:25 (30분)		◯ 비자나무 생태,향기체험 - 비자나무 생태 - 비자나무 향기체험	곡두재 비자데크		비자나무 향기체험
11:25~ 11:30 (5분)	마무리	◯ 마무리 (느낌나누기) - 비자나무 향기체험 소감나누기 - 해설 프로그램 질의응답 - 설문지 작성	주차장		**설문작성**

□ 세부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내용
일광정.연못 	[목 적] 일광정 연못을 통한 자연과 문화 [진행방법] 자연적인 연못과 인공적인 연못을 통하여 선조들의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생활을 이해한다.
갈참나무길 	[목 적] 오래된 갈참나무 길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 [진행방법] 갈참나무 길에서 만나는 곤충과 새, 나무에 대하여 알아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 배워본다.
천년고찰백양사.쌍계루 	[목 적] 천년고찰 백양사와 쌍계루가 가지고 있는 자연과 문화 [진행방법] 고불총림 백양사를 알고 쌍계루 현판을 통하여 자연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가치 느껴본다.
비자나무생태.향기체험 	[목 적] 비자나무을 이용한 아로마테라피 향기체험 [진행방법] 비자나무 생태를 이해하고 비자나무 열매와 비자나무 잎을 이용한 향기 체험을 통하여 몸과 마음 힐링한다.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시간
도입	소개 및 나눔	▶일정소개 - 프로그램 개요 및 안전교육	20분
	내장산국립공원 소개하기	▶ 국립공원 소개하기 - 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지구 소개하기 - 안전 건강 체조하기	
전개	자연과 문화 이야기	▶일광정,당산나무 -연못 주변에서 만나는 자연과 문화 • 갈겨니와 하중도 ▶갈참나무 길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 문화 - 갈참나무6형제 이야기와 더불어 함께 살기 ▶천년고찰 백양사와 쌍계루 -쌍계루 현판이 들려주는 이야기 - 쌍계루가 가지고 있는 자연과 문화	30분
	비자나무 생태,향기체험	▶비자나무 생태 - 천연기념물 153호 비자림 - 비자나무 생태와 피톤치드 - 비자나무 수형을 보고 온몸으로 표현하기 ▶비자나무 열매와 잎을 이용한 향기 체험 -비자나무 아로마테라피 체조하기 - 비자나무 피톤치드와 함께 자연의 치유사 만나기 (바람, 햇빛, 자연소리 등)	30분
마무리	소감나누기	▶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 향기 체험이 나에게 주는 의미 공감대 나누기	10분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



운영장소 내장산국립공원 백양골 일원

참가대상 성인 15명 내외

운영시간 90분

참가비용 무료

신청방법 선착순 우편, 메일접수, 전화접수, 현장 접수

갈참나무 길

갈참나무 길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 문화

- 갈참나무 생태와 갈참나무 6형제 이야기, 갈참나무길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가치 알아 보는 시간

천년고찰 백양사

천년고찰 백양사의 역사와 문화

- 고불총림 백양사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를 알아보며 쌍계루 현판에 대한 역사와 내용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옛 문화와 선조들의 문화를 통하여 자연과 문화의 소중함을 느낀다.

피톤치드 가득한 비자나무숲

비자나무 생태와 향기 체험 학습

- 천연기념물 비자나무숲에서 비자나무의 생태에 대하여 알아 보고 비자나무 열매와 잎을 관찰하며 숲속의 “자연 치유사” 피톤치드와 함께하는 향기 체험 활동을 통하여 몸과 마음에 귀기울여 본다.

자연해설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

활동장소	백양골 자연관찰로 일원
소요시간	90분
참가대상	성인
참가인원	15명 내외

활동목표

- 에코형 여가를 즐기는 탐방객 대상 비자향 특화성을 살린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백양골 대표 해설과 함께 비자나무 열매와 잎을 활용한 향기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몸과 마음의 힘을 키운다

준비물

- 미니구급함, 루페, 비자나무 열매, 비자나무 오일.

유의사항

- 자연관찰로 탐방로 걷기, 자연과 함께하는 열린 마음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 **프로그램 소개 및 일정 나누기** - 프로그램 개요 및 안전교육 – 국립공원 소개 및 인사 나누기 – 내장산국립공원 소개 및 백양골 소개하기 – 안전 건강 체조 하기	20분
전개 (활동 및 체험)	• **갈참나무 길이 들려주는 이야기** – 갈참나무 6형제 이야기 – 갈참나무길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가치 • **천년고찰 백양사 역사와 쌍계루 유래** – 쌍계루 현판이 들려주는 이야기 – 쌍계루가 가지고 있는 자연 & 문화 • **비자나무 생태와 내몸을 깨우는 향기 체험** - 비자나무 생태와 피톤치드 - 비자나무 열매와 잎을 이용한 향기 체험 활동 ▶비자나무 아로마테라피 체조하기 - 비자나무 피톤치드와 함께 자연의 치유사 만나기 (바람, 햇빛, 자연소리 등)	6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 **느낌 나누기 및 설문조사** • **주변정리**	10분

시나리오

인사 및 아름다운 백양골 소개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연환경 해설사 000입니다. 저희 백양골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문화를 후손에게 전해주기 위해 국가가 직접 보호하고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1987년 전문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국립공원공단이 설립되었으며 총 22개의 국립공원 중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장산국립공원은 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국립공원을 탐방하실 때는 자연의 주인인 야생 동식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고성방가 등의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처럼 국립공원을 사랑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이 더욱더 보호 될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여 누구나 부담없이 국립공원을 찾아 자연을 즐기고 힐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린 포인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도록 하여 공원 내 쓰레기통을 없애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호하여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고 물려주는 것이 바로 국립공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구급약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저와 안전 체조 함께 하겠습니다.

(몸풀기 체조)



이곳 내장산국립공원은 1971년 11월 17일 8번째로 지정되었으며 내장산과 전남 장성의 백암산, 그리고 입암산 이렇게 3개의 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프로그램은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대표 해설프로그램인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일광정에서 건강체조를 한후 갈참나무길을 따라 걸으며 비자향 가득한 자연 생태를 만나보겠습니다.

관찰로 주변에 줄지어 서있는 갈참나무 그리고 천년고찰

백양사의 역사와 문화, 천연기념물 제153호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 받은 비자나무숲을 지금부터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산나무와 갈참나무 길

여기 보이는 이 나무는 갈참나무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과 다른점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네 바로 우람한 나무 줄기에 지푸라기를 꼬은 새끼줄이 둘러져 있는데요 바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하며 당산제를 지내는 나무로 당산목이라 부른답니다. 당산제를 지내는 유래는 마을의 안녕과 복을 빌기 위해 오래된 나무나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여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나무나 큰 바위에 신령한 기운이 있다는 정령신앙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곳 당산제는 다른마을에서 지내는 당산제와 다른 의식 절차가 오래 동안 전해 내려 오고 있습니다.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흗 밤에 백양사에서 제에 올릴 음식을 장만하고 마을에서는 제를 올릴 술과 제를 지내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당산제를 지내며 또한 불교 의식으로 이루어져 제관을 뽑지 않고 백양사 스님 들에 의해 불교식으로 내려오는 전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전에 지내던 당산나무 주변에 주차장이 생겨 일광정에 있는 이곳 갈참나무로 당산나무를 바뀐 것이 이색적입니다.
당산제는 당산목에 새끼줄을 두르고 붉은 황토를 뿌려 이곳이 신성한 곳임을 표시하였고 소원이 있으면 창호지에 소원을 적어 새끼줄에 꽂아 기원하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이곳은 신성한곳이니 나쁜일이나 나쁜 전염병은 오지 말기를 기원하며 지내는 당산제는 옛날 선조들은 생명이 있는 자연이 신성함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연을 함부로 대하거나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있는 이곳은 일광정 앞입니다.
한일자 빛광자 정자정자를 써서 일광정이라 부르는데 아침에 해가 뜰 때 제일 먼저 일광정에 한줄기빛처럼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모습을 보고 일광정이라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일광정 앞에 있는 연못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일광정 연못입니다. 일광정 연못은 보이기에는 자연적인 연못처럼 보이시지만 인공연못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인공 연못을 만들면서도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연못 가운데 작은섬처럼 보이는 하중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계곡에서 흘려 내려 오는 물들이 바로 흐르지 않고 하중도에 부딪치면서 물길이 양 옆으로 갈라지면서 물 속 퇴적물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일광정 주변에 아름드리 갈참나무들이 줄지어 서있는 이곳을 갈참나무길이라고 부르며 봄이면 갈참나무의 새순이 돋아나는 모습에서 봄의 기운을 느끼기 위하여 전국에서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오는 명소중의 한 곳입니다. 이렇게 커다랗고 우람한 갈참나무는 산에 가서도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갈참나무는 참나무과에 속하는 육형제중 하나 인데요 참나무의 참은 진짜라는 뜻이며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입니다. 선조 임금님의 수라상에 도토리 묵이 올려졌다 하여 상수리나무, 열매가 참나무중에서 가장 작아서 이름 지어진 졸참나무, 지금 보이시는 일광정의 갈참나무는 가을 늦게까지 잎이 오래 달려 있습니다. 이 세가지 참나무들 열매들은 열매에 둘러 있는 깍지들이 민모자 모양으로 구별 할수 있습니다. 줄기 껍질이 푹신하여 코르크 마개로 사용되는 굴참나무, 옛날 짚신 안에 잎을 깔아서 신은 신갈나무, 잎에 있는 털에 방부 효과를 가지고 있어 떡을 싸서 보관 하였던 떡갈나무들은 열매에 쓰고 있는 깍지들이 털모자로 되어 있는 모습으로 구별 할수 있습니다. 참나무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는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참숯이죠. 옛날에 연료가 나무였던 시대에는 참나무로 만든 숯을 장에 갔다 팔면 값을 후하게 받아 식량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지역에 이렇게 오래된 갈참나무가 한그루만 있어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림이 어려웠던 옛날에 가장 좋은 숯을 만들어 식량과 바꿀 수 있었던 나무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갈참나무 길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천년사찰 백양사 앞에 있는 나무를 자르면 집안에 우환이 든다는 믿음 때문에 이처럼 오랜 세월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갈참나무가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갈참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참나무 열매를 좋아하는 다람쥐. 어치, 동박새 등 많은 동물들과 곤충들이 찾아 오는 함께 더불어 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애기단풍나무

내장산 하면 많은 탐방객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나무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을 빨갛게 물들이는 단풍나무 인데요. 단풍나무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200여종,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40여종 그중 내장산국립공원에는 13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단

풍나무 종류는 보통 앞으로 구분합니다. 5~7개로 잎이 갈라져 있는 단풍나무. 9~11개로 잎이 갈라져 있는 단풍나무, 9~11개로 잎이 갈라져 있는 당당풍, 고로쇠나무는 몇 개로 갈라져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5개로 잎이 갈라져 있습니다. 신나무는 길쭉한 잎이 3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복자기나무와 복장나무 역시3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국이 원산지인 중국 단풍은 잎이 몇 개로 갈라져 있는지 기억 나신가요? 맞습니다. 중국단풍 역시 잎이 3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지구는 독특한 말발굽 형태의 지형 때문에 일교차가 커서 잎이 조그마한 애기단풍 나무의 단풍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단풍잎이 아기손바닥처럼 조그마하여 애기단풍나무라고 이름이 지어 졌습니다. 여러분 봄에 피는 애기단풍나무꽃을 본적 있으세요? 바로 봄에 잎이 겨울눈에서 나올 때 꽃눈도 함께 나와 잎과 함께 꽃이 펼쳐지는데 마치 건빵속에 들어 있는 별사탕 요정 같습니다. 이곳 백양사지구에 4월에 오시면 애기단풍 꽃을 만나실수 있습니다. 여름에 애기단풍나무는 백양골 자연관찰로에서 가장 사랑 받는 초록빛을 뽐내다 가을이면 빨간빛으로 물들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을에 단풍이 드는 이유는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기온이 떨어져 광합성 작용을 멈추면 나뭇잎이 본래 가지고 있던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단풍이라고 합니다. 어느 가을날 과학자가 바람을 타고 빙글빙글 돌며 하늘을 나는 애기단풍나무의 씨앗을 보고 나서 단풍나무 씨앗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고 생각하여 단풍나무 씨앗을 자세히 관찰 하였더니 그 속에 작용과 반작용의 프로펠라 법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원리를 이용하여 하늘을 날수 있는 헬리콥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백양골에 찬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이 오면 애기단풍나무는 주렁주렁 달고 있던 나뭇잎과 씨앗을 떨치고 겨울동안 다가오는 겨울눈에 꿈을 키우며 따스한 봄을 기다립니다.

천년고찰 백양사 역사와 문화

백양사는 백제무왕33년(632년)에 여환선사에 의해 맨처음 백암사라고 창건 되었으며 고려시대 때 중창하면서 극락정토 세계를 추구하고자 정토사라고 고친 후 조선선조 때 영천암에서 환양선사가 법화경을 설법하자 구름떼처럼 사람들이 몰려와 설법을 들었다 합니다. 일주일간의 설법이 끝난 밤에 스님의 꿈속에 흰 양이 나타나 스님 저는 천상에서 죄를 짓고 지상으로 흰 양이 되어 내려와 스님의 설법을 듣고 깊이 뉘우쳐 다시 천상으로 올

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며 스님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환양선사가 영천암 뒤로 가보자 흰양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뒤 흰백, 양 양자를 써서 백양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백양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이면서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수덕사에 이어 5번째 총림으로 지정된 고불총림 백양사는 참선을 수행하는 전문도량 선원입니다. 그후 동화사, 쌍계사, 범어사가 총림으로 승격 되어 8대 총림사찰이 있습니다. 백양사는 인간 본래의 면목이란 의미를 가진 고불 총림으로 부처님 원래의 가르침을 기리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불총림 백양사 주위에는 울긋불긋 단풍나무와 갈참나무,비자나무등 은행나무, 감나무들이 가을의 정취를 더해 주는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가을 못지않게 해마다 봄이 되면 백양사 앞마당에 350년된 고불매는 호남 5매중 하나로 많은 탐매가 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0여년 전 3월 백양사 앞마당의 고불매 꽃들이 일제히 피어났을 때 함박눈이 펄펄 내려 온 세상에 눈인지 매화꽃인지 황홀한 풍경을 이루고 있을 때 때마침 스님께서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고 있을 때 뒤에 있는 사진작가가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국립공원 사진전시회에 최우수상으로 선정 되어 전국적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백양사경내의 350년된 고불매는 호남 5매 중의 하나로서 매월 3월이면 고불매꽃들이 향기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천년고찰 백양사의 정취를 더해줍니다.

여기 보이는 이 누각은 1350년 각진국사에 의해 처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1370년에 붕괴된 이후 1377년에 복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도전, 이색 등 문인들이 기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1381년에 작성된 이색의 '백암산정토사쌍계루기'에 따르면 이곳에서 두 개의 물이 합쳐지므로 두쌍자 계곡계자를 서서 '쌍계루'라고 하였습니다. 이곳 자연관찰로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누각과 정자가 있습니다. 바로 맨 처음 만났던 장소인 일광정 정자와 이곳 쌍계루 누각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 오는 정자와 누각이 지어지는 위치는 자연적인 조경이 뛰어난 경치가 좋은 곳에 지어졌으며 정자는 누각보다 규모가 작은 일층 구조로 놀거나 쉬는 공간입니다. 사방을 바라 볼수 있도록 문과 벽이 없어 다락처럼 높이 지은 누각은 문인들이 시와 노래를 짓던 장소였습니다. 자 이제 쌍계루에 올라 누각의 아름다움을 느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 앉아 뒤로는 백학봉의 기운을 받고 앞으로는 물결에 비친 세상을 보며 풍류를 즐겼습니다. 쌍계루 누각에 올라오니 사방으로 펼쳐 보

이는 경치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지붕아래 사면으로 검은 바탕에 흰 한자들이 빽빽이 적어져 있는데 무엇이라 할까요? 네 현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40여년전에 뛰어난 문인 한분이 이곳 쌍계루에 관한 시를 한편 남기셨습니다. 그러자 그 뒤를 이어 기라성같은 많은 문인들이 쌍계루에 관한 시와 글을 남겨 이곳에 240여편의 글들이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맨 마지막으로 쌍계루 시를 남기신분은 바로 조순 전총리입니다. 정면 바로 옆에 조그마한 현판인데요. 정면 중앙에 있는 큰 현판이 맨 처음 지어진 쌍계루 원운시입니다. 내용을 읽어 보면 구시금견 백암승 , 지금 시를 써달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파필침음 괴미능 , 붓을 잡고 능히 읊지 못하여 재주없음에 괴로워 하노라 청수기루 명시중, 청수스님이 누각을 지어 이름이 중하고 목옹작기 가환증, 목은 이색이 기문을 지으니 값이 더하도다. 연광표묘 모산자, 안개가 자욱하니 저무는 산이 붉고, 월영배회 추수징, 달빛이 배회하니 가을물이 맑구나 , 구향인간 번열뇌. 오랫동안 인간에게 시달렸으니 , 불위하일 공군등, 어느날 옷을 벗고 님과 함께 올라와 볼까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포은 정몽주 문인이 지은 시인데 여기서 님이란 임금군자를 써서 임금님과 함께 올라오고 싶다고 노래한곳이 쌍계루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단한 쌍계루에 올라와 있습니다. 쌍계루는 백양사내에 있지만 선비들이 시와 음악을 읊으며 풍류를 논하는 우리의 문화 공간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비자나무 숲

지금 오른쪽으로 보고 계시는 나무는 비자나무입니다. 백양사지구에 자생하는 비자나무 모니터링 결과 8000여 그루의 비자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비자나무 군락지는 국립공원 내장산의 천연기념물 제153호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 보호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숭유억불 정책으로 사찰이 어려웠을 때 백양사 스님들이 생계대책으로 비자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임금님에게 진상하는 특산물로 구충제역할을 하는 열매로 애용하였습니다. 일년내내 늘푸른 상록 침엽교목인 비자나무는 암.수 딴그루이며 줄기가 사방으로 퍼집니다. 4월에 꽃이 피고 이듬해 가을에 열매가 익는 비자나무의 목재는 향기와 탄력이 있어 바둑판과 배를 만드는 귀한 목재로 사용되었습니다. 비자나무 숲에 들어서면 맡을수 있는 테르펜 성분은 리모넨과 알파피넨으로 항암. 항균 효과가 뛰어나며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비자나무는 이곳 내장산 이후 북쪽에서는 스스로 자생할 수 없어 자생할 수 있는 북쪽한계지역인 이곳 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 지구의 비자나무 군락지는 식물 분포학

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비자나무 주위로 살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링 구간을 정하여 모니터링 구간 내에 어떤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지 개체수의 파악 등을 꾸준히 연구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자료를 남기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찰해 보면 비자나무 아래에 다른 식물들이 다양하게 자라지 못한 이유는 바로 비자나무가 다른 식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어내는 피톤치드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물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성분은 사람에게는 살균 성분과 항산화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향기입니다 .이러한 비자나무 향기를 이용하여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 시켜 인체의 항산성 유지를 위하여 아로마테라피 즉 천연 향기 요법이 오래전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자오일 셀프마사지를 위하여 두줄로 나란히 줄을 서 보겠습니다.여기 준비 해온 비자나무 오일을 뒷목과 손목에 넉넉하게 바른후 먼저 자기 두손을 잡고 오일이 흡수되도록 천천히 문지르면서 맛사지 해주겠습니다. 네 비자오일이 두손에 스며 들어 가고 있습니다. 향긋한 향기가 온몸에 퍼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지금 이순간 내앞에 있는 마주 보고 있는 사람과 양손을 잡고 비자오일을 맛사지 해주겟습니다. 얼굴 한번 마주 보고 웃음 한번 보내주면서 부드러운 표정으로 부드럽게 서로 맛사지 해주겠습니다. 비자오일의 향기가 멀리 멀리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맛사지를 마치고 두분이서 손을 잡으며 걷기 운동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비자나무 향기가 느껴 지신가요? 네 참 잘하였습니다. 비자나무의 천연 향기가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에 떨어져 있는 비자나무 잎과 열매 향기를 맡아 보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까지 청명해지게 전달되는 특별한 향기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을 함께 하였습니다. 백양골 자연관찰로에서 만나는 특별한 나무들과 천년고찰 백양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만나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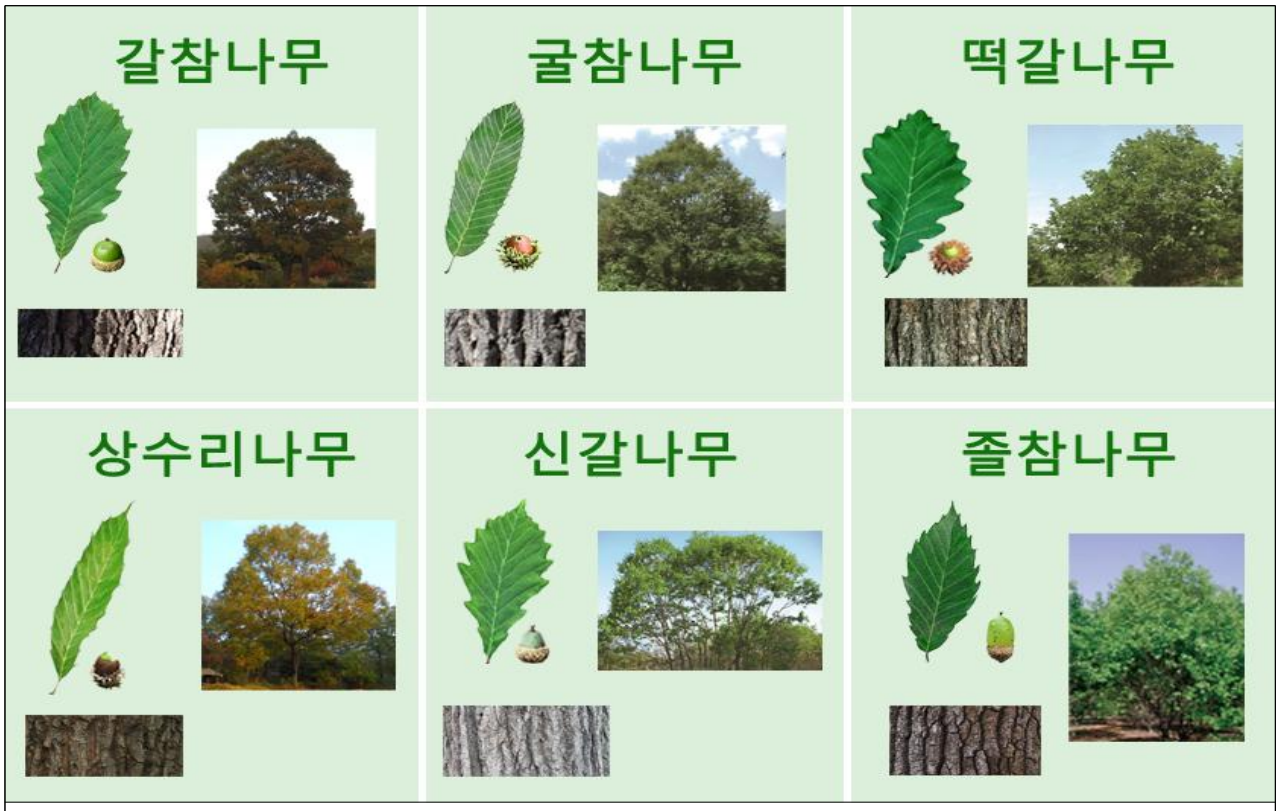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은 비자나무 향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마다 자신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백양골에서 만나는 자연과 문화가 너무 친근하여 이제는 마치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져 말로 인사 건네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백양골 자연관찰로를 탐방 하시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마음속에 추억의 사진 한 장 남기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으로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교부재



참나무 종류 (참나무 6형제)

갈참나무
가을참나무라고 부르다가 갈참나무가 되었답니다.
잎은 주걱모양을 하고 있고 뒷면은 회백색입니다.

굴참나무
껍질에 난 골 때문에 골참이라 하였다가 지금은 굴참나무라 불린답니다.
잎 뒷면에는 털이 있어 흰색으로 보인답니다.

떡갈나무
잎이 방부효과가 뛰어난 떡을 싸는데 사용되었다 하여 떡갈나무라 불립니다.
잎 뒷면에 갈색 털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수리나무
임금님 수라상에 도토리묵을 만들어 올렸다 하여 상수리나무라 불립니다.
잎 끝부분이 피침형(창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잎 가장자리가 날카롭습니다.

신갈나무
옛날 짚신 안에 잎을 깔았다 하여 신갈나무라 불립니다.
잎은 크고 털이 없으며 가장자리는 물결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졸참나무
참나무 중 가장 작은 잎과 열매가 있어 졸(卒;졸병졸) 참나무라 불립니다.
작고 끝이 날카로운 잎을 가지고 있답니다.

참나무 종류 해설



신나무



중국단풍



고로쇠나무



단풍나무



애기단풍



당단풍

백양골 단풍나무 종류



대명매



선암사매



홍매



고불매



계당매

호남 5대 매화

<붙임2> 설문지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
만족도 조사 설문(성인대상)

비자향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개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1. 귀하는 다른 자연 해설 프로그램을 많이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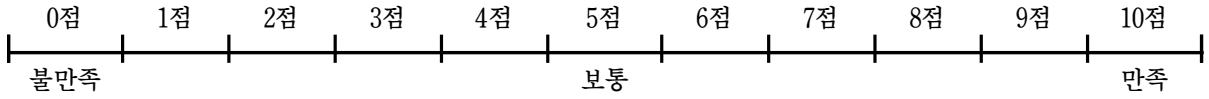
2. 프로그램 내용과 주제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3.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 프로그램 참여 후 지인에게 소개 하고자 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4. 다시 프로그램에 참석 하신다면 어느 계절에 방문하고자 합니까?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⑤ 언제든지

5. 이번 프로그램 참석한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되었다 ⑤ 매우 아니되었다

6.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표현한다면?



7. 본 프로그램 중 각각의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산행 안전교육 및	5	4	3	2	1
백양골 자연관찰로 해설	5	4	3	2	1
사찰 문화해설	5	4	3	2	1

8.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9.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 프로그램 과정 중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적어 주십시오.

10.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이나 의견을 자세하게 적어주십시오.

※ 기초조사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성 별 ① 남 ② 여
□ 연령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기타